



사르트르 피카소 나이팅게일 슈바이처 닉슨



채플린(위)과 파편하임.

유머와 이타주의로 빛어낸 성공의 연금술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들에게 무슨 신 통력이 있어서 일까. 아니다.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리석은 존재일까. 그것은 더 더욱 아니다. 이들이 뿌리는 옥수수 등의 씨앗은 약간의 물기만 있어도 살아남는다. 생명에 대한 끈질긴 이들의 강한 신념이 식물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이다.

인디언들이 지내는 기우제는 단순히 비를 기다리는 발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다. 사막과 같은 척박한 삶의 조건 속에서 기우제는 이들이 이타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강하게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결국 언젠가는 비가 와서 씨앗이 트겠지' 하는 강한 신념도 함께 불어 넣어준다.

심리학자인 지은이는 한 인간이 삶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 '성공의 연금술'로 정의한다. 유머, 이타주의, 갈등역제 등은 성공을 이루는 성숙한 자아의 연금술이라는 것이다. 반면 미성숙한 자아는 고통을 과장하고, 공격적이거나 자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고 한다.

이 책은 이 '인디언 기우제 정신'을 통해 안팎의 문제와 고통,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15인의 사례를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은이는 심리학적인 정교한 틀을 통해 이 책의 등장인물 15인이 각자 처했던 특수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 준다.

'채플린'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영화인으로 크게 성공한 반면 결혼 생활의 거듭된 실패 등으로 번민했지만 시종 일관 '유머'라는 성숙한 대응을 통해 훌륭한 삶을 일구어냈다. 중증 정신병을 앓았던 '파편하임'은 상상 임신한 자신의 불행한 아이에게 들려주고자 동화를 썼고, 그 '이타주의'의 발로는 결국 그녀를 '이야기 치료'의 선구자가 되게 하였다.

겉쟁이인데다 인내심과 팀워크가 모두 빵점이었다던 탐험가 '샤를 뽀렘'은 놀라운 '역제'를 발휘해 '인듀어런스 호의 귀감'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성숙한 적응을 통해 성공적 삶을 산 사례다. 이 책에는 이들과 달리 미성숙한 적응 방식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

으키고 실패하며 좌절했지만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성공적 삶을 일군 사례들도 등장한다.

괴팍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성질머리 때문에 매번 직장에서 쫓겨난 '샌더스'는 자신의 분노를 빼가 녹아내릴 정도로 땀을 짜서 양념을 같이 배게 한 혁신적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으로 승화했다.

'주먹이 먼저'였던 '저질'은 무리하게 강행한 군사 작전에 실패해 국민의 원성을 샀지만 그런 기질을 잘 다듬어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었다. 어린시절 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자란 '닉슨'은 정치생활 중 치명적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몰락하지만 말년에 진심과 회심을 통해서 언론과 여론에 의해 냉전 종식과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재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난 '나이팅게일', 개인적인 불행은 꿈으로 극복한 '안데르센'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은이는 행복한 성공의 연금술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려준다. 이 모든 성공기들 역시 우리의 똑같은 일상의 문제로 괴로워했지만, '마음의 기우제'로 결국 행복을 일구어냈다는 것이다

책은 기존 자기계발서와 확연한 차별성이 돋보인다. 가장 큰 차별은 성공의 습관, 기술 등 상투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심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은이는 15명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성공적인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있고,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문제는 있지만 그 대응방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으며, 양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문제상황에서 자신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학적 대처법임을 강조한다.

판에 박은 성공의 법칙을 정리에 보여 주는 대신 이 책은 각 장 말미에 인간관계와 조직 생활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 문제 상황과 갈등 심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심리학적 예시를 한 편씩 붙였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괴롭다면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나만 괴롭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넘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는지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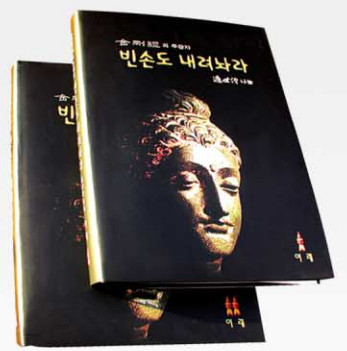
인디언기우제 고영건 지음 정신세계원 | 1만2천원

84,000장경의 예술로지

금강경의 주장자 빈손도 내려놔라

도서출판 아래. 저자 둔세승. A4 size 100% 칼라양장판 867쪽

불교사상 처음 금강경을 의지해서 그동안 배우고 탁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둔세승(세간을 등진 출가자)이라는 필명으로 밝힌 4차원적인 삶의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나는 알고있다는 현대인들에게 1,000여편(세계불교문화유산)의 컬러 이미지와 함께 깨달음으로 이끄는 밀레니엄 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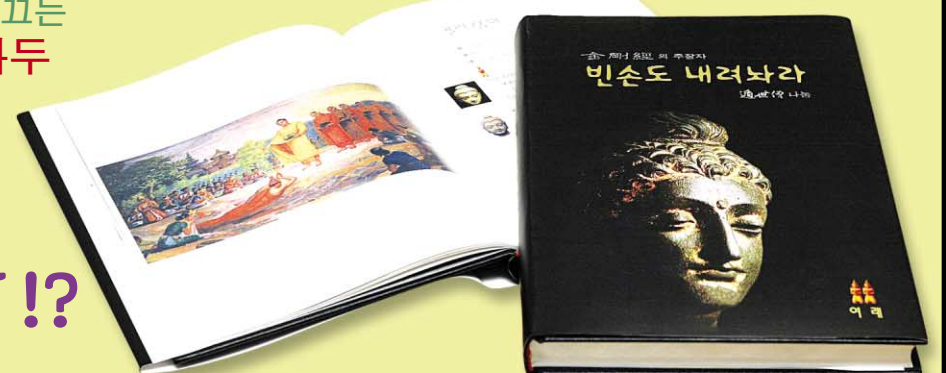


정가 / 상하권 100,000원

연락처 : 021515-8289 0531744-9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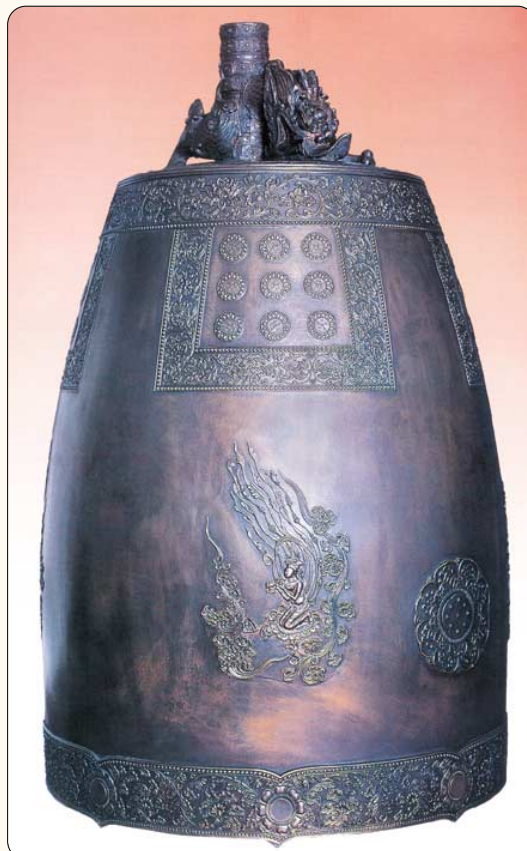
www.buddhapia.cc

보면 보인다!?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은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포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리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할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케인트리를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덕리 406-28 www.sungjongsas.co.kr E-MAIL : sungjongsas@hotmail.com